

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 063-280-7100 / 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 의 : 사회문화연구부 김형오 연구위원
(063-280-7172, 010-9602-1455)
- 담 당 :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
(063-280-7141)

보도시점 : 2020년 11월 08일(월)부터

전라북도를 스마트관광 1번지로 만들자!

위드코로나 시대,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마트관광 1번지, 전북 실현' 을
위해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스마트관광은 관광객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서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매력을 증대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 관광의 구성요소를 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플랫폼 등으로 구성하고, 스마트관광 구성요소들을 활용해 관광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모바일 하나로 관광의 만족도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코로나19로 침체되어있는 전북 관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으로 새로운 디지털 관광 콘텐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미래 관광산업을 리드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전라북도를 스마트관광 1번지로 만들자!』 라는 주제의 이슈브리핑(253호)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관광의 산업구조, 관광행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마트 관광 1번지, 전북 실현'을 목표로 전라북도의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 이슈브리핑(제253호)에서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마트관광 1번지, 전북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스마트 체험관광 1번지 구축을 위한 ‘스마트 경험과 편의제공’, 전북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비스 연계 및 공유’ 방향을 제시했다.
- 전북 스마트관광 추진과제에서는 ▲ 디지털 실감콘텐츠 구축, ▲ 스마트 관광지원 서비스, ▲ AI기반 관광+교통(Double-T) 서비스 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를 통한 관광객 행태 분석 고도화, ▲ 스마트관광도시 공모 대응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위드코로나 시대 스마트관광 선도 지역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한다.
- 특히 관광콘텐츠, 관광인프라, 관광지원 서비스, 관광교통, 관광데이터 등 스마트 관광 5대 요소를 고려하여 전라북도 내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디지털과 결합시켜 실감형 관광콘텐츠를 구축하고, 관광 빅데이터 및 수요대응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자는 주장이다.
- 김형오 박사(연구책임)는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구조, 상품 소비, 정보탐색 과정, 관광행태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경험과 편의제공을 위한 전북만의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 여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광과 ICT 첨단 기술을 결합한 공유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개인의 취향과 자신만의 여행을 설계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자료 및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